

# 군사·조운기지서 근대문물 전래 항구 자리매김

## 국가기록원과 함께하는 남도 근대화 탐사



〈전남편〉

### 6. 개항과 함께 도시로 성장하는 목포

수심 17~27m 큰 선박 출입 가능  
영산강 뱃길 통해 나주·광주 연결

예로부터 호남 세곡 집결 요충지  
개항이후 일제 강제수탈지로 전락



목포부사(1930)에 수록된 목포 개항 당시 지도. 남쪽과 동쪽 일부 지역의 해안에 계획노선이 표기돼 있으며 이곳은 매립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개통된 철도 호남선, 경성~목포간 도로 등이 삽입된 것으로 볼 때 1930년 시점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목포 외곽인거지 지도. 이 도면은 각국의 부지선정이 있기 전에 거류지 전체에 대한 개략적 공간활용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국가별 부지는 설정되지 않았고, 도면 중앙의 산지에 목포 촌락이라는 표기 외에 상륙지, 세관건설부지, 세관용 해변 부지, 위원주택부지가 표기돼 있다. 또한 갯벌(泥地)로 표기된 지역은 이후 지도에서 매립된 곳으로 판단된다.



1897년 10월1일 목포항이 개항된 지 22년이 지난 1919년 목포항을 그린 도면.

목포라는 도시의 성장을 이야기하는데 '1897년 10월1일 개항'을 빼놓을 수 없다. 개항 전 목포는 영산강과 바다가 만나는 접점에 자리한 군사 및 조운(현물로 거두어들인 각 지방의 조세를 선박으로 수도까지 운반하던 제도) 기지일 뿐이었다. 당시로서는 제 주도를 제외하곤 전남에서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였던 무안군의 한 부분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그러한 목포는 일제에 의해(열강의 탐바구니 속에서 조선정부가 개항을 결정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개항장으로 결정된 뒤 일제의 강제수탈은 물론 근대문물 전래의 입구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 과정에 대해 근대 목포와 관련 국가기록원의 문헌 및 자료, 다수의 논문들이 참조로 당시의 목포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먼저 개항장으로서의 결정과정이다.

목포는 조석간만의 차, 갯벌, 낮은 수심 등으로 근대 항구로 부적합했던 서남해안에서 유일하게 좋은 항구였다. 이는 조선주재 일본헌병대사령부가 1911년 작성한 '전라남도 해안도시의 상황'에서 잘 묘사돼 있다. 무안반도 서남 방향 돌출부에 자리한 목포항의 수심은 17~27m로 큰 선박의 출입도 가능했으며, 삼호반도·화일반도·고하도·달리도·눌도·압해도 등이 내부 방파제, 진도·하의도·장산도·압태도·자은도·지도 등이 외부 방파제 기능을 하면서 자연재해로부터도 안전했다.

또 남도의 젖줄인 영산강 뱃길을 통해 남도의 심장부인 나주와 광주에 도달할 수 있는 요충지이기도 했다. 목포는 이 같은 이유로 1397년(태조 6) 목포진이 설치되고 1439년(세종 21)에는 수군만호가 임명돼 연간 12개 도시를 관리하기도 했다. 1502년(연산군 8) 목포진성이 축성됐으며, 그 후 1895년(고종 32) 나주목 무안현에서 분리되면서 목포진 역시 폐지됐다. 목포는 개항되기 전부터 호남의 세곡이 집결되고 1891년에는 이 세곡 운반을 위해 독일이나 일본의 선박이 고용되기도 했던 핵심 항구였다는 것이다.

일제가 이러한 목포를 개항장으로 하려 했던 것은 당연했다. 대륙 진출을 바라봤던 그들은 목포가 중국 상해와 일본 나가사키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뒀을 것이다. 그들의 야심은 1894년 청일전쟁 승전 이후 본격화됐다. 같은 해 8월20일 '조일합참합동조약(斷定合同條款)'을 체결하면서 전라도 연안에 개항장을 개설하는 내용을 포함했었다.

국가기록원은 이와 관련된 공문서 뿐만 아니라 간행물 등도 스캔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대한제국 시기에 작성된 '주한일본공사

기록'의 번역본이 대표적이다. 그 중 11권에 목포의 개항에 관한 일본 측의 상세한 기록이 남아있다.

일제는 1883년 인천의 개항과 함께 일본 전관거류지를 설정했다. 그런데 이 지역이 협소해 청일전쟁 당시 일본의 주력부대 3000명과 군마가 주둔하기가 어려웠고, 영국 측의 항의마저 있어 주둔지 때문에 일본이 곤란에 처했다고 한다. 군사적 목적 외에도 무역항의 늘리기 위해 일본은 독자적인 거류지를 필요로 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 1894년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잡정합동조약'에는 전라도 연안에 하나의 항구를 개항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 해 12월에 일제는 새로운 개항장 후보지 물색했다. 일본 영사 우치다 사다츠치가 작성한 후보지에 관한 보고서에는 용포와 목포에 방문해 조사한 기록이 남아있다. 우치다는 "용포는 경상도 마산포를 제외하고 이곳과 비교할 곳이 없을 정도로 좋은 항구고, 단지 선박의 정박처로는 목포보다 낫지만 제방의 축조 및 매립공사를 하지 않으면 당장 거류지로서 신시가를 건설하는데 적당치 않다. 목포는 현 지형이 특별히 광대하지 않지만 필요한 경우 쉽게 확장할 수 있고, 근처에 사람이 살기에 필요한 용수가 부족하지 않다. 현재 상태로는 목포가 개항장을 만드는 데 적당하고 생각한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목포는 결국 전라도 개항장의 최종 후보지로 선택됐다. 그런데 이는 곧바로 실행되지 못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아귀다툼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의 입장에서 일제의 목포 선점은 인정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마침 1895년 러시아가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 요동반도를 청에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이른바 삼국간섭으로 일본이 요동반도를 돌려주자 조선정부의 친러경향이 강화되면서 목포 개항 논의는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이후 1896년 일본은 개항문제를 다시 재기했는데, 이에 대해 러시아 공사 카를 베베르가 다음과 같은 이의를 제기하며 반대했다.

첫째, 이미 개설된 3개 항구(부산, 원산, 인천)로도 충분하고, 2개 항구를 추가로 개설할 이유가 없다. 둘째, 조선은 독립국인데, 자국의 항구를 개항하는데 조약이 아닌, 자국의 법률로 해야 한다. 셋째, 일본이 2개 항의 개항을 결행하고자 한다면, 러시아도 북방에 2~3개 항의 개항을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당시 친러 세력이 장악했던 조선정부 역시 개항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었으나, 총재무사 겸 탁자부 고문이었던 영국인



폐지된 직후 목포진 전경. 1397년(태조 6) 설치된 목포진은 1895년(고종 32) 목포가 나주목 무안현에서 분리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개항 직전 또는 그 직후 유달산 전경.

브라운이 개항으로 인한 관세수입의 증가가 조선의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자 찬성하는 분위기로 점차 바뀌었다.

결국 일본 공사와 외무대신 민중목이 은밀히 상의해 조선정부가 자진해 개항하는 형식을 논의했고, 이 안은 1897년 의정부 회의에 상정됐다. 같은 해 7월4일 한양에 주재한 각국 사신들에게 10월1일 목포와 증남포(이후 진남포로 개칭)를 개항하고, 외국인의 거류와 무역을 허락한다는 칙령을 공포했다.

조선해군은 진남포와 목포의 개항절차에 관한 제반사무를 담당했고, 총재무사 브라운이 조계장정을 기조했다. 이 초안을 놓고 조선정부와 외국사신이 절충을 해 신개항장의 거류지제도는 인천과 같이 조영조약에 준거, 일본의 전관거류지가 아닌 각국공동거류지로 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지난한 과정을 거쳐 목포는 개항됐고, 목포 해관도 같은 날 개청했다. 조선정부가 개항을 주도하는 차원에서 개항 전인 9월12일 개항장을 관리·운영하는 무안감리서 신설이 공포됐고, 일본 영사관은 과거 만호청 건물에서 10월25일 업무를 개시했다.

그러나 각국공동거류지에도 불구하고 개항 이후 정식으로 영사관을 개설한 나라는 일본뿐이었고, 정착한 외국인 가운데 97%가 일본인이었다. 또 각국거류지 면적의 비율을 보면, 90% 이상이 일본의 관유지 또는 사유지였고, 넓은 부지를 확보한 영국(1만2475㎡)과 러시아(1만9311㎡)는 영사관도 개설하지 않고 그 부지를 방치했다.

목포는 이 개항으로 본격적인 근대도시로 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일본인이 주로 거주했던 각국공동거류지는 면적이 좁은 목포의 해안선을 매립해 근대적으로 개발되는 반면, 한국인들이 살았던 그 외 지역은 사실상 방치하며 목포는 도시로 형성되게 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윤희철 국가기록원 직원

▲도움말 주신 분  
노경수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이봉수 동강대 건축과 교수  
▲이 기사는 국가기록원·광주시·전라남도의 지원으로 작성됐습니다.

연말 송년모임 예약 받습니다.

●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15,000원 ● 아리랑하우스 한정식: 25,000원~

## 30년을 지켜온

### 요리전문 비즈니스 호텔그 명성 그대로~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도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과죽이**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광역시 맛집**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 - 2111 (계림동 출플러스 건너편)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세미나, 회식 등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편리한 주차,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커피숍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외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식락

[www.geumsoojang.com](http://www.geumsoojang.com)